

이렇게 들었다

결식아동

온 세상의 낯날 이웃들을 위해...

최근 한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15만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으며, 아버지의 실직, 부모의 가출 등 가정파괴로 갸우뚱한 아이들을 이어 가는 가정 또한 늘고 있다고 한다. IMF를 극복하고, 외환보유고도 68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아우성들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는 어린이들이 허기에 찬 배를 움켜쥐고 있다. 경제회복의 환희성도 그동안 먼나라의 이야기로 들릴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경제난을 극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따뜻한 나라일 것이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자.

〈편집자주〉

보살은 이웃들이 온갖 고통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온 세상의 낯날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체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보살의 집착없는 행이다.

〈화엄경 심행품〉

비록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되나니,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돈이나 재물이나 또 음식은 그 힘이라 보시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집아함 노사경〉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증상심(增上心)으로 널리 일체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할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香)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라. '원컨대 일체중생이 모두 가장 좋은 계향(戒香)을 얻고 일체 낙구(樂具)가 구족하여 모두 여의하여지이다.' 〈방등경〉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복된 결과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때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행하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기쁨은 거기 있으니. 〈집아함 환희경〉

대상에 이르러면 네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禪定)에 들어반성하여서, 즉한함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비심(悲心)을 내어 중생을 양육(養育)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낱 개미까지라도 공포에서 건져 주는 것, 이것이 사문의 의무이다.

〈열반경〉

세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갖난애를 젖먹여 기르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만약 병들면 양약(良藥)을 가져 먹여 병을 고쳐서 편안케 해준다. 여래대사(如來大師: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 보기를 그 자식인 것같이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마음을 쓰시지만, 중생이 악업을 지어 보(報)를 받을때는 교묘한 방편으로 구제해서 해탈케 한다.

〈선교방탈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아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네팔 한국대사관의 선교



김정순님
한불문화진흥원 이사장

부처님 탄신일인 네팔의 기독교 신자가 50만명이라는 공식 집계 11월 21일 발표되었다. 지난 몇년 사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로서 모두 한국 기독교계의 공로(?)다. 이곳에는 120명 정도의 한국선교사가 늘 풍부한 자급력을 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선교한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룸비니의 아쇼카왕 석주에도 빨간 십자가를 그려 대관 해 허를 차게 한다.

인도와 네팔은 기독교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머지않은 날에 네팔의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독교 선교를 공식화 할 것이라는 예측도 쉬운 일이다.

네팔 한국대사관의 직원들조차도 무종교인인 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독교 신자다. 한국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절약차원에서 해외의 공관 업무를 폐쇄할 때 이곳 대사관은 폐쇄 4순위에 들어 있었다. 당시 이곳 대사관에서는 "불교 성지가 있고 한국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불교계에 호소했다. 대각사 도문스님께서 구명운동에 앞장서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을 움직이게 했고, 월주스님이 정부에 건의한 결과 대사관이 폐쇄되지 않게 되었다. 당시에는 대사관 직원들도, 기독교 선교사도 조용히 언덕러 있다가 폐쇄 위기가 넘어가자 또 다시 선교에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선교사는 앞서고 대사관 직원들은 뒤에서 행정적으로 교묘히 뒷받침하는 형태다.

더욱이 최근에 교황이 인도를 방문하며 "인도사람들을 개종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까지 설쳐들 것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목.소.리

새천년, 과대포장 아닌지



정우스님
서대문 백련사

소위 새천년이 한달도 안 남은 요즘 각 매스컴들은 연일 밀레니엄 관련 소식들을 전한다. 서력기원은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연대기에 기독교 문명권이 아닌 나라 또는 비기독교인들은 조금은 초연한 자세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불교계 신문들조차 오히려 편승하는 것같은 분위기에 쓸쓸한 생각을 지을수 없다.

밀레니엄 새천년이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천년왕국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세기말적인 종말론과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종교현상들은 거의 전적으로 1,000 또는 2,000이라는 숫자에서 비롯되는 것일 게다. 서구 기독교문명과 그 위치에 물들어서는 현대인들은 무엇이란 숫자로 보여주려 하고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에 따라 움직이려 한다. 음식을 섭취해도 칼로리라는 단위로 계량화 수치화하고 성적을 숫자로 매겨 일류 이류를 구분하며, 영업실적도 숫자로, 월급도 액수로 따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2,000년만 되면 마치 별천지가 열리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종말과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불자라면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새천년'이 아닌 서기 2,000년을 맞는 참지혜일까? 경심삼이 도임을 알고 있는 불자라면 2,000년 아침에 뜨는 해나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해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세상변화의 근본은 바로 내마음에 있음을 참구해 나가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것이 낯날 변경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출을 보겠다고 부산을 떠는 행동보다 훨씬 고귀함을 잘 알고 있기에...

서세동접에 의해 말살되다시피 한 동양정신, 불교정신 또는 우리고유의 정신이 모든 민족과 문화에 적용될 공평관용처럼 행세하는 '새천년' '밀레니엄'에 매정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목탁소리

김재경 <취재1부기자>

최근 여권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조계종 소속 중진스님 두 명을 포함한 3명의 스님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사실과 관련 교계에서는 '스님과 정치'라는 화두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여론 주도층인 정치권에 대한 도교 활성화를 이루고 불교관련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해 불교 위상을 높일 것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불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스님들이 타종교를 믿는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아 성직자로서의 위상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이 지난 9월1일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 불교문화원을 설립해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나선 것은 점차 사회적 힘을 잃고 있는 불교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하는 정자와 같은 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스님이 직접 정치집단인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정치인 교화'를 통한 '불법 종교'라는 결과를 얻어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포교방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온갖 모략중상과 파벌치가 횡행하는 악육강식의 집정터 아닌가. 아무리 높은 원력과 대의명분을 갖고 포교에 임하더라도 진흙탕을 밟아쓰기가 쉽지는 않겠는가.

조선시대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스님은 종종 때 발생한 법난으로 만신창이가 된 불교를 소생시키기 위해 신심 깊은 문정왕후와 함께 명종대의 불교중흥을 이루었지만, 결국 유생과 관료들의 모진 압박을 받으며 순교하기에 이른 적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행자인 스님들이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리고 불교계는 내년 3월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행보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자의 소리

사랑과 참회 편지쓰기

사부대중 동참하자

248호 현대불교신문을 보니 전국불교운동연합이라는 곳에서 이달부터 108일동안 사랑과 참회의 편지쓰기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참으로 요사이 불교계에 맞는 운동이라 생각된다. 부처님 말씀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면 허물이 없어져서 악의 근본이 사라진다고 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다. 허물만이 아니라 진실로 부처님법을 따르는 불자들이라면 매일 매일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과 참회의 편지쓰기 운동이라도 동참했으면 한다.

특히 중년 부류로 불교계와 이 사회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은 진실로 참회하고 그러한 참회가 들어있는 글을 불자들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임호성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환경보호 캠페인

불교계 앞장서야

요즘 사찰에 참배라도 가면 사찰입구 계곡마다 러브호텔 카페 식당 등이 점점 더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보금자리만은 훼손하거나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학대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제대로 살수나 있을 것인지 두려워진다.

불교계는 내분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신 생명관, 세계관이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환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갔으면 한다. 일체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으며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깨달도록 국민들에게 계몽운동을 펴자는 것이다.

김춘환 <인천시 남구 도화2동>

와선호흡·행선염불

몸과 마음 건강 비결

요즘들어 3천배, 만배 등 기도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평소 내가 해본 경험을 토대로 기도하는 불자들을 위해 몇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싶다. 먼저 호흡에 맞춰 절을 하면 숨차지 않고 할뎅거림도 없어지며 힘이 들지 않는다. 또 저절로 숫자도 헤아려진다. 또한 한글 글자경을 읽으면서 한다면 목탁을 치지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으며 리드미컬하게 신명나게 독경을 하면 된다. 그러면 가운데 단전에서 차크라가 저절로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라도 있다면 저절로 녹여 풀어지고 신심이 절로 솟아오른다.

와선호흡과 행선염불, 선체조는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눈이 충혈되는 분들에게 좋으니 꾸준히 하기를 바란다.

손, 발, 허리등이 차가운, 몸이 냉한 사람은 매일 30분씩 절을 하면 건강해지니 따로 운동한다고 시간을 낼 것이 아니라 108배를 정성껏 해 볼 일이다.

김용기 <경기 양평 범양정시수행원>



낙서장으로 변한 국보

미륵도량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은 국보 62호로 지정된 온 국민의 소중한 성보이다. 그런데 미륵전 뒷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뒷벽이 온통 못 같은 걸로 흩어 새겨놓은 낙서로 가득 차 있다. 과연 이렇고도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으로 회복하기가 힘든 것이다.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우리 불자들부터 소중히 여기고 아껴자.

〈이영준, 전주시 금암동〉

회당학회 재창립에 따른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당학회는 회당사상과 불교 및 밀교의 교리수행·의식·체계에 대해 조사, 연구,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창립되었으나, 활발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학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회당학회를 대한불교 진각종단이 관리하는 학술선행단체로 면모를 일신하여, 불교학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한 폭넓은 계층을 수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모집기간: 진기 53년 12월 11일(토)까지 ~ 1차 모집
- 모집대상: 제한 없음
- 접수방법: 학회 임직원서 1부 작성 (연회비 및 기사사항은 추후 통보함)
- 접수 및 문의처: 136-13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 대한불교 진각종 교육원내 회당학회 전화 02)913-0133,0134 / 팩스 02)913-0135

개업인사

삼보에 귀의하옵고 그동안 살피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선배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금번 소생이 하기의 장소에서 여러스님들의 힘을 빌어 불교용품점을 개점하였기에 이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종 불사와 행사에 필요한 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서적 및 인쇄물(현수막) 및 모든 불사 상담도 정성껏 해드리오니 많은 지도와 이용 바라오며 먼저 지면을 통하여 개업인사 드립니다.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1-5 서여중 앞 (포란사여가 가구 2층 사하불교 연합회관 내)

TEL : 051)205-4535 ~6
FAX : 051)205-4537

사이불교연합회부설 삼보불교 예술원
혜정 박신영 합장

광운대학교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오만원(₩50,000)
 -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분
 - 세계적인 교리 공부
 - 바른 신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오만원(₩50,000)
 - 자격: 광운대학교(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권 도움을 청합니다 권

소송은 중복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산25-6번지, 자비사 건립 불사 중에 어려움에 처해 전국에 불자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건립불사에 복을 지으시고 무량대복을 받으십시오. 소송이 불사건립 원만한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정진하여 성불을 이루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불자님께 소송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말마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액(水脈)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病魔)을 막아 건강(健康)을 지켜주고 역운(厄運)을 물리치고 재앙(災殃)을 방지하며 사업(事業)이 잘되고 가정(家庭)에 행운(幸運)을 가져다 준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불사에 복을 지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달마도 표구 완성품(40cm×75cm)

1구좌 5만원 입금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계좌 312892-0033277
자비사 : (0475)731-1632
스님 휴대폰 : 018-851-1631